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2)

- 6차 통신사에서 11차 통신사까지를 중심으로

정 응 수*

目 次

1. 5차 통신사까지의 후지산 - 서론을 대신하여
 2. 선계(仙界)로서의 후지산1
 3. 선계로서의 후지산2 - 『사로승구도』를 중심으로
 4. 다시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
 5. 결론
-
-

1. 5차 통신사까지의 후지산

- 서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조선통신사들이 후지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총 12번에 걸친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그 중에서 1차부터 5차 통신사까지의 후지산관은 이미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1)」¹⁾이란 글에서 살펴봤으므로, 여기서는 6차부터 12차 통신사들까지의 후지산관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이하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 든 논문을 간단히 요약하여 서론을 대신하기로 하자.

오늘날의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후지산은 1707년의 분화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휴화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대 일

*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일본학(비교문학·비교문화).

1) 정응수,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1)」, 『일본문화학보』 제27집, 2005년 11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1년의 2/3 이상 산머리에 눈을 이고 있다가도 한번씩 불을 뿜어대는 후지산은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 때문에 슈겐도(修驗道)나 센겐신사(淺間神社)와 같은 근대 이전의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백광진공회(白光真宏會)를 비롯한 현대의 많은 신흥종교들도 후지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에도(江戸)시대에는 분화구인 성지에 참배하면 센겐(仙元) 대보살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후지코(富士講)가 성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지산을 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지산 등반기나 안내서를 비롯하여 후지산을 그린 우키요에(浮世繪)가 대량으로 출판되어 후지산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가 되었고, 메이지(明治) 이후 「후지산」이란 창가(唱歌)가 보급되면서 후지산은 말 그대로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통신사에게 후지산은 그저 사행길에 지나치면서 관상하는 대상이었다. 최초의 통신사인 1607년 사절단의 경점은 후지산을 보고 그냥 모서리 없는 한 덩어리의 큰 돌일 뿐이라고 했다. 즉 초여름에도 머리에 눈을 이고 있어 신기하기는 하지만, 산 이상의 그 무언은 아니었던 것이다. 3차 통신사의 강홍중도 구름을 뚫고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과 산정을 뒤덮고 있는 눈을 보고 천하장관이라 감탄했지만, 후지산을 그냥 자연경관의 하나로 바라보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즉 이때까지의 조선통신사에게 있어 후지산은 그냥 하나의 산, 자연경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4차 통신사의 김세렴은 후지산을 신선이 산다는 ‘단구(丹丘)’나 ‘은궤(銀闕)’이라 표현하여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후지산과 함께 우리나라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전까지 자연경관에 불과하던 후지산이 이때부터 선계로 바뀐 것이다. 전임 통신사와 김세렴이 본 후지산은 모두 똑같은 산이었지만, 그 똑같은 산이 여기서 선계로 이미지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5차 통신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1차 통신사부터 3차 통신사까지는 후지산을 단순히 자연경관의 하나로 바라보았지만, 4차 통신사와 5차 통신사는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6차 통신사 이후의 조선사절단이 후지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선계(仙界)로서의 후지산1

1655년의 6차 통신사가 후지산을 처음 본 것은 금절하(金絶河)에서였다. 금절하는 오늘날의 시즈오카현(静岡県) 하마마쓰시(浜松市)에 있는 이마기레(今絶) 나무를 가리키는데, 사절단은 여기서 금루선(金樓船)으로 갈아타고 강을 건너게 된다. 강을 건너며 후지산을 본 남용익(南龍翼, 1628-1692)은 “배안에서 부사산(富士山)을 바라보매 높직이 하늘 끝에 반면(半面)을 드러내었는데 멀기가 4일 길이나 되는데도 다른 산이 가리우지를 못하니, 그 높고 큰 것을 알 수가 있다”²⁾며 그 크기에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지은 「금절하(金絶河)를 건넌」이란 시에서는 “비로소 삼신산(三神山)의 낮을 알겠”다며 후지산을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사절단의 접대를 맡은 승려 중달(中達)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 산은 천추에 흰 구름이 봉하였으니
예로부터 신선이 종적을 숨기려 함일세.
한 창려의 정성이 감통됨인지
축융봉에 검은 구름이 다 걷히었네.³⁾

한창려는 중국 당나라 때의 대문장가인 한유(韓愈, 768-824)를 가리킨다. 한유는 선조가 창려(昌黎)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창려라고도 불리는데, 어느 날 형산의 축융봉에 올랐다가 구름에 갇혀 길을 잃게 된 한유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자 구름이 걷혔다고 한다. 후지산의 구름이 걷힌 모습을 이러한 한유의 고사를 빌려 표현한 것인데, 이 시를 보면 남용익이 후지산을 신선이 사는 선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선이 종적을 숨기려 한다고 하여, 후지산이 지닌 선계로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표현도 하고 있다. 사실 이 17세기 중반부터 조선사절들 사이에 후지산보다 금강산이 훨씬 좋다는 소위 ‘금강산 우월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앞에서 4차 통신사부터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는 시가 지어졌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선사절의 칭찬에 일본의 문인들이 우쭐해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2) 남용익, 『부상록』, 『국역해행총재』 V,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510쪽.

3) 남용익, 『부상록』, 『국역해행총재』 V,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522쪽.

후지산을 보고 금강산을 처음 떠올린 것은 5차 통신사의 조경(趙綱, 1586-1669)이었지만, 본격적인 ‘금강산 대 후지산 우열 논쟁’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이 남용익이었다. 당시 28살의 혈기왕성한 그는 「부사산 노래」에서 “아아, 위태롭다 기특하다 이상하다 부사산이여 / 쭈그리고 삐죽 삐죽하고 두루두루 뻗쳤고 넓고 크고 까마득하다. …… // 나는 귀로는 오악(五岳)을 익숙하게 들었으며 눈으로는 삼신산(三神山)을 보았으므로 / 이 부사산을 듣고도 놀라지 아니하여 보아도 경멸하네. ……”라고 후지산을 폄하하여 일본 문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이 우열논쟁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해순이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는다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절이 후지산이 선계라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후지산보다 금강산이 훨씬 더 좋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는 조선통신사들의 이러한 후지산관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진다. 1682년 7차 통신사의 사행록은 압물통사(押物通事) 김지남(金指南, 1654-?)의 『동사일록(東槎日錄)』과 역관 홍우재(洪禹載, ?-?)의 『동사록(東槎錄)』이 있지만, 여기에는 후지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이 있어 자세한 사정을 알 길이 없다.

1711년 8차 통신사의 사행록인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의 『동사일기(東槎日記)』에도 사행 4년 전인 1707년에 후지산이 분화하여 생긴 보영산(寶永山)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을 뿐, 후지산에 관한 시는 물론이고 이른바 금강산 대 후지산 우열논쟁에 관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 오사카에서 발행된 『사객통통집(槎客通筒集)』이란 책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당시 사신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에도(江戶)까지 왕복 동행한 일본인 승려 소엔(祖緣, 1658-1714)과 조선사절이 주고받은 한시가 18수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모두 살펴볼 여유가 없으므로 정사 조태억이 소엔의 시에 응답한 60구로 된 7언고시(七言古詩)의 일부분만을 보기로 하자. 조태억은 먼저 중화에 서 멀리 떨어진 동해 바다에 후지산과 같은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낸 다음, 이러한 후지산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읊고 있다.

4) 이해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년, 260-280쪽.

.....

한 송이 높이 솟은 옥부용	一朵亭亭玉芙蓉
언제나 눈보라가 길어 희뿌영구나.	常時雪霰長蒙籠
청량한 기운 아침에 항해(沆瀣) 이루고	爽氣晨凝沆瀣精
차가운 빛 밤새 교룡궁 비추네	寒光夜徹蛟龍宮 ⁵⁾

.....

옥부용은 후지산, 몽룡(蒙籠)은 눈 때문에 시계가 명확치 않은 것을 나타내고, 항해(沆瀣)란 신선이 마신다는 신령한 이슬, 교룡은 이무기와 용을 가리킨다. 즉 하늘 높이 솟아 있는 후지산은 눈 때문에 언제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다음, 아침에는 산의 청량한 기운이 응결하여 선계의 신령한 이슬이 되고, 밤에는 차가운 빛이 그곳에 살고 있는 상상의 동물인 교룡의 거처를 비추는 것이다. 이를 보면 조태역도 후지산을 신선이 사는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⁶⁾.

후지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719년 9차 통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사행록에는 홍치중(洪致中, 1667-1732)의 『해사일록(海槎日錄)』, 정후교(鄭後僑)의 『부상기행(扶桑紀行)』, 김흡(金歙)의 『부상록(扶桑錄)』, 신유한(申維翰, 1681-?)의 『해유록(海游錄)』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유한의 『해유록』이 가장 유명하다. 『해유록』은 일본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유려한 문장으로 인해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와 함께 조선시대 기행문학의 쌍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신유한이 후지산을 처음 본 것은 9월 19일 백수촌(白須村)을 지나면서였다. 백수촌은 오늘날의 시즈오카현(靜岡縣) 시라스가(白須賀)로 당시 도카이도(東海道)의 32번째 역참이었다. 원래는 해안 근처에 있었는데 1707년의 대지진과 해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후 고지대에 있는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아마도 신유한이 지난 백수촌은 이 새로운 곳에 건설

5) 이 8차 통신사와 소엔의 창수시를 다룬 논문으로는 호리구치 이쿠오(堀口育男)의 「正徳辛卯朝鮮通信使と富士山の詩」(『季刊 日本思想史』, NO .49, 1996년, べんかん社)가 있다. 물론 이 논문도 쪽수의 제한으로 18수를 모두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기술은 상당 부분 호리구치의 논문에 기대고 있다. 한시는 필자가 의미를 좇아 번역했다.

6) 물론 6차 통신사 이후의 후지산 관련 시들은 대부분 후지산보다 금강산이 더 좋은 산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므로, 전반부에서는 후지산을 칭찬한 다음 후반부에서 금강산이 더 좋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조태역은 이 시의 끝부분에서 그런 직접적인 언술을 피하고, 언젠가 당신과 함께 비로봉에 올라 두 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외교관다운 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절들이 후지산이 선계라는 것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된 곳이었을 것이다.

그때의 느낌을 신유한은 “내가 남여를 멈추고 바라보니 꽃 한 송이가 빼어나서 마치 백옥잠(白玉簪)이 푸른 하늘에 바로 꽂혀 있는 것 같았고 중턱 이하는 구름 안개가 가려있음이 마치 태화산(太華山)의 옥정(玉井)에 백련화(白蓮花)가 드러난 것과도 같아서 세상에서 늘 보던 것이 아니었다”⁷⁾고 했다.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있는 후지산의 모습이 ‘태화산정에 있는 옥정의 연꽃’이라는 한유의 시구를 떠올릴 정도로 신비하게 보였기에, 인간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 진시황으로 하여금 이 산의 광경을 낭야대(琅琊台)에서 바라보게 하였더라면 마땅히 다시 창해를 건너서 참 신선을 불렀을 것”이라며, 후지산을 진짜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유록』에 다시 후지산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9월 23일이다. 이날 사신 일행은 점심을 먹기 위해 요시와라(吉原) 객관에서 쉬었는데, 이 요시와라는 당시 도카이도의 13번째 역참(驛站)이 있던 곳으로 원래부터 후지산을 관상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도카이도의 53개 역참과 연도의 풍경을 그린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 1797-1858)의 그 유명한 「도카이도 53 역참(東海道五十三次)」 시리즈에도 물론 이 요시와라에서 바라본 후지산 그림이 들어 있다. 게다가 이날은 날씨도 좋아 후지산을 관찰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래서 신유한은 다시 후지산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다음 ‘부사산부(富士山賦)’를 지었다.

우뚝히 높다 높아 교만스럽게 하늘에까지 솟았구나.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 노을이 아득히 밑에 있구나.
 누가 옥을 쪼아 비녀를 만들었나 흰 옷 입은 여인의 살결이 희고도 곱구나.
 마치 달이 너울너울 춤추며 애교를 부려 가을밤을 밝히는 것 같구나,
 맑고 명랑하고 뽀족하고 고와 천하에 상대가 없는데 아! 네가 어찌하여 오랑
 कै의 땅에 섰는고!
 ……

저 높고 높아 신령스럽게 빼어난 것은 그것이 원교산인 줄 알 수 있네.
 이 산의 동방 한 구석에 외로이 서서 부상에 뜨는 빛난 해를 쪼이누나.
 깨끗하고 우뚝한 옥설(玉雪)의 높은 자태로다.
 내가 여섯 용을 시켜 못 신령을 까마득한 이 산에 배정하였네.⁸⁾

7) 신유한, 『해유록』, 『국역해행총재』 I,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509-510쪽.

8) 신유한, 같은 책, 515-517쪽.

.....

“저 높고 높아 신령스럽게 뻗어난 것은 그것이 원교산인 줄 알 수 있네”라는 부분을 보면, 신유한이 후지산을 신선이 산다는 다섯 산 중의 하나인 원교(円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산의 형상을 가지고 볼 때에는 부사신은 원교라 불러야 하겠고, 상근산은 방호라고 부름이 합당하겠다”⁹⁾라 했는데, 이를 보면 그는 후지산만이 아니라 하코네산(箱根山)도 선계인 방호(方壺)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맑고 명랑하고 뽕족하고 고와 천하에 상대가 없는데 아! 네가 어찌하여 오랑캐의 땅에 쫓는고!”라며, 이러한 명산이 일본과 같은 야만의 땅에 있음을 애석해 한다. 사실 『해유록』을 살펴보면 신유한은 일본의 곳곳에서 그 절경에 감탄하며 그러한 절경이 오랑캐의 땅에 있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쿠라(小倉)의 경치를 보고는 “해상의 절승한 땅이 그릇되어 푸른 수건 쓴 아이와 이빨에 검정물 들인 계집이 짝지어 앉은 자리가 되는 데에 깃뻛히고 말았으니, 이것이 조물주(造物主)의 무슨 뜻인가?”¹⁰⁾ 라며,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일본에 있는 것에 대해 조물주를 원망하기도 했다. 일본의 자연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을 것이다¹¹⁾.

3. 선계로서의 후지산2

1748년 10차 통신사의 경우는 먼저 그림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통신

9) 신유한, 같은 책, 515-5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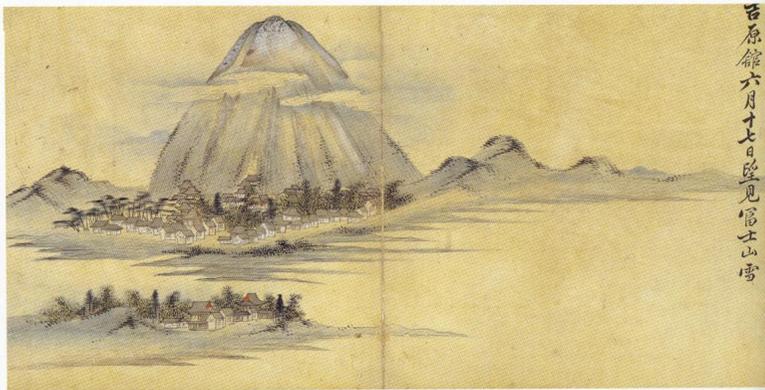
10) 신유한, 같은 책, 452-453쪽.

11) 이러한 안타까움에서일까 신유한은 이 글에 이어 “이것은 조물주가 비밀히 아껴서 구주의 밖에 두어서 중화의 높은 선비로 하여금 생각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왜속으로 하여금 보고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동일하게 불우한 것이다”라 했다. 즉 선계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비는 선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일본인은 선계를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선계임을 알지 못하니 둘 다 불행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후지산이 선계임을 알아본 자신의 안목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나 있다. 그는 쓰시마의 고후나고시(小船越) 주변 경치를 보고 나서도, 이것이 만약 중국 장안 근처에 있었다면 장안의 귀공자들이 너도나도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글을 지어 천하의 명소가 되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렇게 외딴 곳에 있어 이무기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하며, 그렇지만 다행히도 자기가 이 절경을 보게 되었으니 산수가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했다.

사절에는 매번 한 두 명의 화원이 동행하는데 그들은 일본인의 요구에 응해 그림을 그려주는 한편, 사행길에서 만나는 자연이나 문물, 풍속 등을 묘사하는 기록화를 남기기도 했다. 10차 통신사행에는 최북(崔北, 1712-1786?)과 이성린(李聖麟, 1718-1777)이 수행화원으로 파견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성린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로승구도(槎路勝区図)』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로’란 ‘뗏목타고 가는 길’이란 뜻이므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일본 여행길을 말한다. 일본사행록이 『해사록』이니 『동사록』이니 하여 ‘사’자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승구’란 경치 좋은 구역이란 뜻이니, 『사로승구도』란 일본 사행길의 경치 좋은 곳을 그린 그림이란 정도의 뜻이 될 것이다. 이 『사로승구도』는 총 30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절단의 출발에서 귀환까지의 과정을 2개의 두루마리에 나누어 그린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후지산을 그린 그림이 있다. 「요시와라 객관에서 6월 17일 후지산의 눈을 바라보다(吉原館六月十七日望見富士山雪)」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은, 사절단이 요시와라 객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쉴 때 그린 것이다. 이 요시와라 객관은 후지산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역대 통신사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며 그 감흥을 읊었던 곳이기도 하다. 9차 통신사의 신유환이 「후지산부」를 지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그림을 보면 화폭의 중앙에서 조금 왼쪽으로 후지산이 보이고, 그 오른



쪽에는 아시타카산(愛鷹山) 연봉(連峰)으로 추정되는 산들이 낮게 늘어서 있다. 산기슭에는 마을이 들어서 있고, 마을 앞에는 도카이

도로 보이는 길이 나있다. 산 중턱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 구름 위에 솟아 있는 산정에는 흰 눈이 덮여 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산의 밑 부분이 실제의 후지산과 달리 매우 좁다는 것이다. 이 점은 「부악 36경(富嶽三十六景)」이라는 46매짜리 후지산 시리즈로 유명한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의 후지산과 비



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아래 그림은 「부악 36경」 중 「도카이도 에지리 다고노우라 약도(東海道江尻田子浦略図)」란 우키요에(浮世繪)인데, 에지리의 다고노우라에

서 바라본 후지산을 그린 것이다. 에지리의 다고노우라는 오늘날 시즈오카현 시미즈시(清水市)에 속해 있는데, 이곳도 옛날부터 후지산을 관상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야마베노 아카히토(山部赤人, ?-?)가 그 유명한 “다고의 개펄 지나 나와 보니, 후지의 높은 피에 새하얗게 눈이 내려 쌓여 있고나((田兒の浦うち出でて見れば真白にそ不尽の高嶺に雪は降りける))”¹²⁾라는 시를 읊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이 두 그림을 서로 비교해 보면, 호쿠사이의 후지산이 이성린의 후지산보다 산정 부분이 훨씬 뾰족하고 산자락은 훨씬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호쿠사이의 우키요에는 에지리에서 바라본 것이고 이성린의 그림은 요시와라에서 바라다본 것이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바라본 후지산을 그린 것이다. 그렇지만 후지산은 거의 원추형에 가까운 단독봉으로 360도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산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성린은 왜 후지산의 밑 부분을 이렇게 실제보다 좁게 그린 것일까? 그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호쿠사이의 후지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호쿠사이의 후지산은 이성린의 그림에 비하면 실제 모습에 훨씬 가깝지만, 이것도 사실은 후지산의 실경(實景)을 그린 것은 아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후지산의 꼭지각은 히로시게의 후지산이 85도, 분초의 후지산도 84도정도가 다. 그렇지만 육군의 실측도에 따라 동서와 남북으로 단면도를 만들어 보면,

12) 김사엽, 『김사엽전집』 8, 박이정, 1984년, 249쪽.

동서종단의 꼭지각은 124도이고 남북은 117도이다. 히로시게와 분초만이 아니라, 그림 속의 후지산은 대부분이 예각이다. 산 정상이 가늘고 높고 화사하다. 호쿠사이에 이르러서는 그 꼭지각이 거의 30도정도로, 후지산을 마치 에펠탑처럼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의 후지산은 둔각 중에서도 둔각으로 (산등성이가)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동서 124도 남북 117도의, 결코 날씬하게 쭉 뻗은 높은 산이 아니다. ……(중략)…… 낮다. 산자락의 넓이에 비해 낮다. 저 정도의 산자락 가진 산이라면, 적어도 이보다 1.5배 높지 않으면 안 된다¹³⁾.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의 「부악 백경(富嶽百景)」 서두인데, 실제 후지산정의 동서 종단면과 남북 종단면의 각도가 모두 둔각임에도 불구하고 히로시게나 호쿠사이의 우키요에에 등장하는 후지산은 모두 예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의 후지산은 산자락이 퍼져있는 것에 비해 그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다지 멋진 산이 아니며, 따라서 후지산이 좀더 균형 잡힌 멋진 산이 되려면 산의 높이가 지금보다 적어도 1.5배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히로시게나 호쿠사이가 후지산을 실제와 달리 예각으로 표현한 것은 산자락에 비해 산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후지산을 산자락에 어울리는 산으로 만들기 위해 산 정상을 실제보다 훨씬 뾰족하게 그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 다자이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성린이 산자락을 실제보다 좁게 그린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성린이 산자락을 실제보다 좁게 그린 것은 후지산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성린의 그림은 산자락이 좁아 웅색한 느낌은 주지만, 그 때문에 산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것은 이성린과 호쿠사이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후지산을 높게 그렸으니 산중턱에 구름이 걸려있어도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 구름을 경계로 하여 산꼭대기의 잔설과 산중턱에 걸린 구름, 산 밑의 마을들이 어우러지며 산정 부분이 산 밑의 마을과는 다른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13) 太宰治, 「富嶽百景」, 『走れモロス・新樹の言葉』, 旺文社, 1978년, 31-32쪽.

참고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富士の頂角、広重の富士は八十五度、文晁の富士も八十四度くらい、けれども、陸軍の実測図によって東西および南北に断面図を作ってみると、東西縦断は頂角、百二十四度となり南北は百十七度である。広重、文晁に限らず、たいていの絵の富士は、鋭角である。いただきたいが、細く、高く、華奢である。北斎にいたっては、その頂角、ほとんど三十度くらい、エッフェル鉄塔のような富士をささげ描いている。けれども、実際の富士は、鈍角も鈍角、のろくさと拡がり、東西、百二十四度、南北は百十七度、決して、秀抜の、すらと高い山ではない。……(中略)…… 低い。裾のひろがっている割に、低い。あれくらいの裾を持っている山ならば、少なくとも、もう一・五倍、高くなければいけない。

나타낸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후지산을 묘사한 기록을 보기로 하자.

반거(盤拗)가 바다 모퉁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결봉우리를 멀리 물리치고 외롭게 일어나 하늘을 찌를 듯이 홀로 서서 기세가 당할 수 없고, 머리와 몸뚱이도 험괴(險怪)하지 않으며, 지는 놀, 영긴 구름이 끝내 그 꼭대기를 올라 덮지 못하고 늘 그 반허리를 돌 뿐이다. 때로 해매(海霾, 바다에 끼는 짙은 안개)가 진부 가려 산의 형태를 볼 수 없다가도 한바탕 바람이 불어와서 가린 것을 헤쳐 살짝 걷어가면 둥그스름한 산머리의 은빛(눈빛을 말함)이 홀연히 하늘 위에 떠서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기울여 쳐다보며 자못 당황하여 정신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지나가면서 바라보면 더욱 높고 장대하여 돌아보는 눈길을 잠시도 놓지 못하게 한다. …… 바다 위에 삼산(三山, 삼신산)이 없다면 모르거니와, 있다면 이 산이 그 중의 하나일 터인데, 난학(鸞鶴)과 생소(笙簫)가 황홀하게 보이는 듯 들리는 듯하니, 신선굴(神仙窟)이라 할 만하다.¹⁴⁾

이 글은 이성린과 같은 10차 통신사의 종사관이었던 조명채(曹命采, 1700-1736)의 기록이다. 산허리에 구름을 두르고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와 그 위를 덮은 흰 눈을 바라보며 이 산이야말로 삼신산의 하나로 신선이 사는 곳이라 했는데, 마치 이성린의 그림을 문장으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아니, 차라리 이 기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성린의 그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미지가 똑같다. 기록화의 성격이 강한 실경풍속화 내지 기행사경화의 특성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가¹⁵⁾를 받고 있는 『사로승구도』가, 유독 이 그림에서 이렇게 실경과 다르게 표현된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조명채가 후지산을 ‘신선굴’이라 표현한 것처럼, 후지산이 가진 선계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리라.

4. 다시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

1764년의 11차 통신사는 에도까지 다녀온 마지막 사절이었다. 물론 1811년에도 한 번 더 통신사가 파견되었지만, 이들은 소위 역지교빙(易地交聘)이라 하여 쓰시마에서 국서를 주고받았으므로 사절단은 후지산은커녕 혼슈(本州)도 밟지 못했다. 따라서 후지산에 관한 조선사절의 기록도 이 11차

14)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국역해행총재』 X, 민족문화추진회, 1986년, 198-199쪽.

15) 홍선표,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面員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권, 한국미술사학회, 1995년, 16쪽.

통신사가 마지막인데, 이때 후지산을 바라보는 조선사절의 시각도 다시 한번 바뀌게 된다.

조엄(趙曠, 1719-1777)을 정사로 한 11차 통신사는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의 제 10대 장군직 승계를 축하하기 위한 사절로, 그들은 1차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가케가와시(掛川市) 사요노나카산(佐夜中山) 고개에서 후지산을 먼발치로 처음 보게 된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른 사절단과 마찬가지로 요시와라 객관에서 후지산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감상을 조엄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일본 나라 산이라면 부사산이 조종(祖宗)이라
용(龍)의 기세 웅장하여 육십육 주 감쌌다오.
원·평의 세상부터 이 산 바로 진산(鎭山)이라
천지의 남쪽 북쪽 봉강(封疆)의 한계로세.
오월이라 상상봉엔 눈무더기 쌓여 있고
일지의 동해에 부용이 솟았구려.
인천(仁天)은 되땅이라서 버리지를 아니하고
대택 심산 내려 주어 만물을 용납하네.¹⁶⁾

‘원·평’이란 헤이안(平安) 시대 말기에 천하의 권력을 놓고 다투던 겐지(源氏) 가문과 헤이시(平氏) 가문을 가리킨다.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겐지가 승리하여 최초의 무신정권인 가마쿠라(鎌倉)막부가 탄생하는데, 후지산이 이때부터 일본 66주를 감싸는 진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 하늘이 어질어 5월에도 눈이 녹지 않는 후지산을 오랑캐 땅에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이를 보면 조엄에게 후지산은 단지 5월에도 눈이 쌓여있는 일본의 중심을 이루는 산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자연경관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쓴 「삼도(三島)를 지나면서」란 시를 하나 더 보기로 하자.

예전부터 삼도에는 신선이 산다 일렀는데
오늘 내가 와서 보니 부질없는 예찬이로세.
상택에 구름 없어 용은 바다로 읊기고
부사산이 눈에 묻혀 학은 허공을 타누나.¹⁷⁾
.....

16) 조엄, 『해사일기』, 『국역해행총재』 V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386쪽.

17) 조엄, 같은 책, 398쪽.

‘삼도’란 오늘날의 미시마시(三島市)를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하코네고개(箱根峠)를 넘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던 역참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먼저 미시마에 신선이 산다고들 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칭찬이라고 한 다음, 그 이유로 하코네호(箱根湖)에 산다는 9개의 머리가진 용이 구름이 없어 바다로 떠났다는 걸 들고 있다. 또한 후지산도 눈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학이 앉을 곳이 없어 허공에 떠 있으니 마찬가지로 했다. 이전에는 후지산에 선계의 이미지를 부여하는데 일조를 했던 눈이, 이 시에서는 오히려 신령한 동물인 학으로 하여금 후지산을 떠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후지산은 더 이상 선계가 아닌 것이다.

사실 그는 삼신산이란 이야기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앞에서 말한 사요노카산 고개에서 눈 덮인 후지산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부사산·열전산·웅야산 등 세 산을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이라.’고 한는데, 부사산은 준하주 지방에 있고, 웅야산은 기이주 지방에 있고, 열전산은 혹은 삼하주 지방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신산이란 말은 본디가 황당한 데 가깝다. 그런데 또 다 일본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믿겠느냐? …… 우리나라는 이미 인삼이 생산되는 고장이므로 제주의 한라산과 고성·의금강산과 남원의 지리산을 세상에서 삼신산이라고 칭하는데, 이 말 역시 꼭 믿을 수는 없다.¹⁸⁾

삼신산이 일본에 있다는 말도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이 조선에 있다는 말도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만이 아니고 조선이 선계라는 것도 부정할 썬인데, 이처럼 삼신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후지산은 그저 하나의 높은 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선계로서의 후지산이 그에 이르러 다시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후지산을 이처럼 단순한 자연경관의 하나로 바라본 것은 조엄만이 아니었다. 당시 사절단의 제술관이었던 남옥(南玉, 1722-1770)도 “등근산봉우리 하나가 불쑥 솟아 있는데 눈이 허리에서부터 위로 정상에까지 이르고 허리 아래에는 소나무와 회나무가 있었으니 이것은 순전히 흙으로 된 산봉우리”¹⁹⁾라 하여 후지산을 단순히 흙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라 했다.

18) 조엄, 같은 책, 175쪽.

그런 다음 후지산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 일일이 진위를 밝히고 “비록 천봉만학의 빼어나고 상쾌한 기이함을 비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풍부하고 거대하며 중후하니, 가히 국력의 부유함과 인물의 번성함을 징험할”²⁰⁾ 수 있다고 했다. 남옥에게도 후지산은 거대하고 웅장하기는 하지만, 기이할 것이 없는 흠덩어리로 이루어진 산봉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성대중(成大中, 1732-1812)도 “부사산의 산세는 사방이 완만하여 험준하지 않다”²¹⁾고 한 다음, 후지산을 삼각산과 도봉산의 중간 정도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코네 고개에 올라보니 그 높이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높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원중거(元重擧, 1719-1790)도 후지산을 보고 “일동의 명산”²²⁾이라 칭찬하기는 했지만, 단지 산의 높이나 산정의 연못과 같은 부분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 즉 후지산을 단순한 자연경관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사절단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후지산을 바라보는 조선사절의 눈이 이렇게 바뀐 것은 왜일까? 그것은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한 조선통신사의 배후에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선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²³⁾과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실학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실학사상은 18세기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여 일종의 학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전반기에는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성호학파가 생겼고 후반기에는 소위 이용후생을 주장하는 북학파가 형성되었다²⁴⁾. 그런데 11차 통신사절의 멤버 중에는 이 북학파와 인적·사상적으로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대중은 북학파의 실학자였던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아버지로서, 홍대용·박지원·이덕무 등 북학파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에게 가학(家學) 및 스승 김준에게서 전수 받은 상수학적(象數學的)인 학풍을 발전적으로 계승, 전달하여 북학사상 형

19) 남옥,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김보경 옮김, 소명출판, 2006년, 399쪽.

20) 남옥, 같은 책, 401쪽.

21) 성대중, 『일분록-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홍학회 옮김, 소명출판, 2006년, 177쪽.

22) 원중거, 『승사록-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김경숙 옮김, 소명출판, 2006년, 292쪽. 그는 또 다른 사행록인 『화국지(和國志)』에서는 후지산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화국지』가 일기 형식이 아니고 내용을 항목별로 기록한 것인 탓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후지산이란 항목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절단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3) 정응수, 같은 논문, 295-296쪽.

24) 금장태, 『한국실학사상연구』, 집문당, 1993년, 20-24쪽.

성의 일익을 담당한 사람²⁵⁾이다. 또한 원중거는 이덕무와 인척관계에 있었고, 역시 박지원·이서구·박제가 등과 밀접한 교류를 하며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사람²⁶⁾이었다. 한편 조엄은 이들과 달리 북학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당시 조선의 사상계를 풍미하던 이러한 시대사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일본에서 감자 종자를 가져와 재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차와 물방아를 자세히 그리게 하여 실생활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실학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의 문물을 바라볼 때에도 항상 실학적·실용적 관점을 견지하였고, 이것은 또한 후지산을 대할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5. 끝내는 말

이상으로 6차에서 11차 통신사에 이르는 조선사절들의 후지산관을 살펴 보았는데, 6차부터 10차 통신사까지는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이는 4차 통신사부터 시작된 후지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지만, 통신사절이 거듭되면서 선계로서의 이미지가 좀 더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6차에서 8차 통신사까지는 흰 구름이나 신선, 향해, 교룡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후지산이 선계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던 것이 9차 통신사에 이르러서는 후지산을 아예 오신산(五神山)의 하나인 원교산이라 못 박았으며, 10차 통신사는 후지산이 갖고 있던 선계로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위기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즉 후지산을 선계시하는 조선사절들의 칭찬에 일본의 문인들이 우쭐해하자, 조선사절들이 후지산보다 금강산이 더 좋다는 ‘금강산 우월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의 문인들이 다시 반발하면서 소위 ‘금강산 대 후지산 우월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논쟁이 결과적으로는 조선사절들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과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²⁷⁾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후지산이 선계라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25) 홍학희, 「『일본록』, 사행일기와 견문록의 만남」,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의 해제, 소명출판, 2006년, 7-8쪽.

26) 박재금, 「일본 경계를 위한 일본 알기」,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의 해제, 소명출판, 2006년, 7쪽.

아니었다. 다만 후지산보다 금강산이 훨씬 더 좋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후지산을 바라보는 통신사의 시각이 다시 한 번 변화하게 된다. 즉 이때부터 후지산을 크고 웅장하기는 하지만 별로 기이할 것도 없는 단순한 흙덩어리의 산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선계로서의 후지산이 다시 단순한 자연경관으로서의 후지산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후지산에 대한 사절단의 이러한 시각 변화에는, 후지산을 선계로 인식한 조선통신사의 배후에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선도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의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실학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북학과와 인적·사상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주로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지산을 바라보는 조선사절의 시각 변화는, 비록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결국은 조선의 사상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이혜순, 같은 책, 279쪽.

【参考文献】

- 민족문화추진회(1986) 『국역해행총재』 I -X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남옥(2006)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김보경 옮김, 소명출판, 399, 401쪽.
- 성대중(2006)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홍학회 옮김, 소명출판, 177쪽.
- 원중거(2006) 『승사록-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김경숙 옮김, 소명출판, 292쪽.
- _____(2006)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박재금 옮김, 소명출판.
- 금장태(1993) 『한국실학사상연구』, 집문당, 20-24쪽.
- 김사엽(1984) 『김사엽전집』 8, 박이정, 249쪽.
- 박재금(2006) 「일본 경계를 위한 일본 알기」, 『화국지-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7쪽.
- 이혜순(1996)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60-280쪽.
- 정응수(2005) 「조선통신사가 바라본 후지산(富士山)(1)」, 『일본문화학보』 제27집, 295-296쪽.
- 홍선표(1995) 「조선후기 通信使 隨行畫員의 倂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 205권, 한국미술사학회, 1995년, 16쪽.
- 홍학회(2006) 「『일본록』, 사행일기와 견문록의 만남」,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출판, 7-8쪽.
- 太宰治(1978) 「富嶽百景」, 『走れメロス・新樹の言葉』, 旺文社, 31-32쪽.
- 堀口育男(1996) 「正徳辛卯朝鮮通信使と富士山の詩」, 『季刊 日本思想史』 NO.49, ぺりかん社

要 旨

本稿は朝鮮通信使の富士山観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江戸時代、朝鮮は12回の朝鮮通信使を日本に派遣したが、1次通信使から5次通信使までの富士山観についてはすでにほかの論文で取り扱ったので、本稿ではそれ以後の通信使の富士山観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にする。

6次から10次までの朝鮮使節は富士山を仙界として認識している。これはもちろん、4次通信使から始まった富士山のイメージをそのまま受け継いだものであるが、それがすこしずつ具体化される様相を見せている。すなわち、8次までは仙人、沆瀣、蛟竜などのような言葉を使って富士山が仙界であることを暗示していたが、9次では富士山を5神山の一つである円嶠として特定している。そして10次にいたっては仙界としての富士山のイメージを視覚的に表現した絵まで描いたのである。もちろん一方では、このような雰囲気反発する動きも現れた。朝鮮使節の称賛に日本の文人がうねばれると、朝鮮使節が富士山より金剛山の方がもっとすばらしいと主張したのである。それでいわゆる「金剛山対富士山の優越論争」が始まるわけであるが、だからといって、朝鮮使節が富士山が仙界であることまで否定したわけではない。ただ富士山より金剛山の方がもっとすばらしいとただけである。

ところが、11次通信使になると、富士山をみる通信使の視角がまた変化する。すなわち、富士山を大きくて雄壮ではあるが、何の新奇なところもない、ただの土塊の山としてみているのである。言い換えれば、仙界としての富士山が自然景観としての富士山に変わったのである。そして富士山に対する朝鮮使節の視角変化には、当時朝鮮の思想界を支配していた実学の影響があったと思われる。これは彼らが北学派と人的・思想的に関連されているのみならず、日本に対する彼らの関心が実用的な部分に集中されていることからわかることであろう。そうだとしたら、富士山をみる朝鮮使節の視角変化は、たとえその変化の速度が遅いといふものの、結局は当時朝鮮の思想的傾向を反映していることとい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朝鮮通信使, 富士山, 仙界, 李聖麟, 金剛山対富士山の優越論争, 実学, 北学派, 自然景観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330-707)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4-580-2173

e-mail : chunges@nsu.ac.kr